

누가 나를 그곳으로 불러 냈을까? 순례 일정 13일 동안 성인들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드넓은 땅에서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에게 되 묻는 뼈저린 성찰의 시간이 과도처럼 겹겹이 밀려왔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미완성 대작으로 가우디 100주기에 맞추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해발 1,500여 미터의 높고 험준한 곳에서 있는 거대한 바위들을 끼안고 있는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만난 검은 성모님을 뵈고 루르드로 갔다.

전날 밤부터 세차게 쏟아지는 비바람에 몸은 춥고 고단했으나 성모님께서 가난한 소녀 벨라벳다에게 무려 18차례나 발현하셨다는 마사비엘 동굴로 가는 길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 산기슭에 있는 루르드 마을을 가로 지르는 가브 강변 절벽 한 가운데 있는 동굴 속에 계시는 성모님은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계시었다.

그 순간 순명과 인내로 가시밭길을 걸

어 오신 성모님의 생애가 가슴 저리도록 아프고 슬퍼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녹여서 어머니께 고통을 드리지 않는 자녀가 되겠다는 다짐이 나를 강하게 압박했다.

기적의 침수장은 그 곳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다. 침수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순례자들은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봉사자에 의해 가운데로 갈아 입고 침수장 중앙 벽면에 계신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나자 양쪽에서 봉사자들이 팔을 잡고 온 몸을 눕혀 기적수에 담갔다. 깊고 넓은 침수장의 물은 잠작 놀랄 만큼 차가웠다.

주님이 어서 너의 죄를 씻어 내라고 드시는 사랑의 회초리 같았다. 침수를 하고 젖은 몸에 옷을 입었는데 금새 마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몸과 마음이 갹털처럼 가벼웠다.

이후 우리 45명은 우산이 휘어질 정도로 쏟아지는 비바람을 맞으며 동굴 안에서 성모님이 벨라벳다에게 알려주신 기적수를 마시고 물통을 채우느라 북새통을 떨었다. 하느님께서 물을 통

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정화, 화해의 은총을 베푸신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고 성인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미사를 봉헌한 일은 순례길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다.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이 만네사 동굴에서 영성수련을 쌓으며, 바위에 손톱으로 파놓은 두개의 십자가, 스페인의 수호성인 야고보의 유해가 있고 도보 순례의 종착지로 유명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 성녀 테레사 수녀의 심장과 팔이 보관되어 있는 알바 데 토르메스 성당, 살라망카 대성당, 부르고스 대성당에서 만난 치마를 입으신 예수님. 270 여년에 걸쳐 지어진 톨레도 대 성당등을 돌아 보았다.

신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빚어낼 수 없는 엄청난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 기법에 탄성을 질렀다.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일생을 바쳐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를 열정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제단, 성화와 조각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순례길에서 가장 가슴을 뛰게한 곳은 성모님 발현지 파티마였다.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성모님상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 쌓인 비교적 높은 동산에 있었다. 울퉁불퉁한 좁은 숲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내 옆에서 성모님이 나를 강하게 잡아 당기시는 듯한 신비로움에 휩싸여 몸은 쪼그라들고 마음은 타는 촛불처럼 뜨거웠다.

순례 마지막 날 밤 9시, 성모발현 경당에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 온 순례자들과 미사를 봉헌하고 촛불 행렬에 참가했다. 이 미사에서 이효연 펠릭스 신부님이 남북간의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주님의 기도를, 김옥옥 카타리나가 묵주기도 1단을 선창하며 분단된 한국의 통일을 위해 여러민족들과 함께 기도했던 감동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순례기간동안 내 귓전을 때렸던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여라”였다. 누구의 잘못이 더 무거운가 항상 저울질 하면서 내 자신을 갈등의 끈으로 묶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특별히 선물해 주셨다.

그 선물이 깨지지 않도록 남은 순례길을 나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갈 것이다.